

‘줄부상’ KIA, ‘버티는 야구’로 6월 반등 가능할까

3~5일 두산·6~8일 한화전 격돌

하위권 상대 승리…기세 이어야
주전 메꾼 대체 선수 활약 빛나
위즈덤 합류에 순위 반등 희망도

KIA 타이거즈가 부상 악재 속에서도 리그 7위(27승 1무 28패·승률 0.491)를 유지하며 ‘버티는 야구’를 이어가고 있다. 상위권과 중위권의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IA는 대체 자원들의 활약과 중심 선수들의 복귀 소식을 발판 삼아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주 KIA는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KT 위즈에게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1위 LG와의 격차는 7



팬 투표와 기자단 투표 합산 8일까지 앱 통해 투표 가능

KIA 타이거즈 최형우(42·사진)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5월 월간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BO는 2일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5월 월간 MVP 후보로 총 6명의 선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수 중에서는 KT 오원석, SSG 앤더슨, 한화 폰세, 야수 중에는 KIA 최형우, 삼성 디아즈, KT 안현민이 5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이 중 최형우는 지난 5월 25경기에 출전해 안타 35개(공동 3위), 타점 23개(5위), 장타율 0.721(1위), 출루율 0.505(1위)과 함께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대 타율인 월간 타율 0.407(1위)을 기록하고 있다.

잇따르는 부상으로 인해 팀이 어려움을



KIA타이거즈 윤도현이 지난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KT 위즈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뒤 팀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경기 차로 좁혔지만, 상위권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KIA는 3일부터 9위 두산 베어스와 잠실 3연전을, 6일부터는 2위 한화 이글스와의 광주 홈 3연전을 치른다.

첫 상대 두산은 올 시즌 23승 3무 32패·승률 0.418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4월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두산은 전력상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마운드를 꼽는다. 팀 평균자책이 4.14로 6위, 선발진의 팀 평균자책은 4.47로 7위다.

특히 두산전은 토종 에이스 광빈의 복귀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빈은 2022시즌 8승9패·평균자책 3.78, 2023시즌 12승7패·평균자책 2.90을 기록한 국내 대표 투수지만, 지난 3월 19일 부상을 당해 시즌 개막부터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광빈은 이번 KIA전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부상 복귀 첫 등판이라는 점에서 KIA 로선 변수 대응이 가능하다. 게다가 KIA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에서 스윙스를 거둔 바 있어 분위기 면에서도 유리하다.

‘불혹 해결사’ KIA 최형우 KBO리그 5월 MVP 후보

광주체중 학생 선수들, 전국소년체전서 빛났다

金 7·銀 12·銅 13개 총 32개
김준서·엄유주 최우수 선수

광주체육중 학생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32개의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지역 엘리트 체육의 요람임을 입증했다.

양궁 김준서(2년)와 배드민턴 엄유주(2년)는 종목 최우수선수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광주체육중학교는 2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소년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대회 성과를 자축했다.

광주체육중은 지난달 24~27일 경남 밀원에서 열린 소년체전에서 17개 종목, 15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우수성적을 거뒀다.

금 7개, 은 12개, 동 13개 등 총 32개 메달을 획득해 광주광역시 전체 메달 75개 중 45%를 차지했고, 2관왕 1명과 최우수 선수 2명을 배출했다.

체조 송채연(3년)이 여자15세이하부 이단평행봉과 평균대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송채연은 개

2025 KBO리그 순위		(2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58	35	22	1	0.614	0.0
2	한화	58	34	24	0	0.586	1.5
3	롯데	59	31	25	3	0.554	3.5
4	삼성	58	31	26	1	0.544	4.0
5	KT	59	30	26	3	0.536	4.5
6	SSG	57	29	26	2	0.527	5.0
7	KIA	56	27	28	1	0.491	7.0
8	NC	58	23	32	3	0.418	8.0
9	두산	58	23	32	3	0.419	11.0
10	키움	61	16	44	1	0.267	20.5

그러나 KIA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리그 MVP급 활약을 선보였던 김도영은 개막전 겪은 부상에서 돌아온 지 한 달만에 햄스트링 손상으로 이탈했고, 내야 핵심 김선빈과 외야 수비의 중심 이창진 역시 각각 근육 손상과 햄스트링 염좌 등으로 복귀 시점조차 점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포 나성범, 유틸리티 자원 박정우, 불펜의 핵 황동하와 광도규, 그리고 기대주 김사운까지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다.

타선과 마운드 양쪽 모두 핵심 전력을 잃은 가운데, KIA는 매 경기 임기응변에 가까운 라인업을 구성해 출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10경기에서 5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타율 1위(0.283), 홈런 1위(13개)에 오르며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급히 콜업된 신예들과 고참 선수들의 헌신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대체 자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4월 콜업된 오선우는 132타석에서 타율 0.315, 16타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까지 소화 중이다. 김도영의 빈자리를 메운 윤도현은 최근 6경기에서 타율 0.458, 홈런 4개를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다. 김석환은 득점권 타율 0.500, 김호령은 외야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기회를 살리고 있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지난 1일 복귀해 2안타를 기록하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6월 중순 복귀가 예상되는 좌완 이의리는 불안한 선발진과 과부하된 불펜 운용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KIA가 부상자 복귀가 예상되는 6월 중·하순까지 지금처럼 버텨낸다면, 완전체로 전열을 가다듬은 후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의 고통이 시즌 후반 ‘가을야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 선수단이 2일 학교 강당에서 해단식을 열고 성과를 자축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인종합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 남U15의 김준서(2년)는 금 1개(40m)와 은 3개(50m·개인전·혼성단체전)를 따내며 종목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조정 이수아·권지영(이상 3년)은 여U15 더블스킬에서, 레슬링 김수형(3년)은 남U15 자유형 80kg에서, 복싱 이창욱(3년)이 남U15 -46kg에서 각각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배드민턴 이윤서·김민·오연정(이상 3년)·엄유주·홍수지(이상 2년)는 여U15

단체전에서 금빛 스매싱에 성공, 2017년 안세영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엄유주는 종목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쾌적한 훈련장 조성과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과학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광주체육중은 앞으로도 엘리트 체육 우수 선수 양성에 최선을 다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구례군청 엄하진, 문경단오장사 여자부 국화장사

전남 구례군청 씨름단 엄하진(31·사진)이 ‘위더스제약 2025 문경단오장사씨름대회’ 여자부 국화장사에 올랐다.

엄하진은 지난 1일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국화급(70kg이하) 결승에서 이재하(경기 안산시청)를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엄하진은 이번 우승으로 올시즌 2관왕을 달성했고 개인 통산 15번째 국화장사 타이틀(2018 단오, 2020 여자전하장사·천하장사, 2021 설날, 2022 거제·단오·추석·안산·여자전하장사·천하장사, 2023 설날, 2024 천하장사, 2025 평창·단오)을 거머쥐었다.



4강에서 정수라(충북 영동군청)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엄하진은 이재하를 상대로 첫 판을 잡체기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어 두번째 판에서도 잡체기를 성고시키며 우승을 확정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드래곤즈, 김주엽 영입… 측면 강화 기대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수원FC 출신 측면 수비수 김주엽(사진)을 영입하며 왕백 전력에 숨통을 틔웠다.

전남드래곤즈는 수원FC에서 7년간 활약해온 수비수 김주엽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주엽은 2019년 고졸 신인으로 수원FC에 입단해 7시즌 동안 활약한 ‘원클럽 맨’으로, K리그 통산 64경기 1득점 4도움을 기록한 측면 자원이다.

데뷔 시즌 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K리그 1 승격에 힘을 보탠 그는 이후 U22 자원으로 활용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1시즌에는 대전코레일(K3)로 임대를 떠나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복귀 후 후반기 12경기에 출전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2시즌 부상으로 긴 재화를 거친 그는 지난해 후반기 복귀해 주전급으로 자리잡았고, 올해는 리그 6경기과 코리아컵 2경기에 출전했다. 2024시즌에는 5년 만에 리그 데뷔골도 기록하며 측면 수비와 공격을 오가는 멀티 플레이어로 활약 중이다.

180cm, 76kg의 탄탄한 체격과 왕성한 활동량, 과감한 전진 성향이 장점인 그는



김현석 감독이 추구하는 ‘가물치불’의 공격적 왕백 전술에 적합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남은 김예성, 김용환이 왕백으로 풀타임을 소화 중이며, U22 자원 안재민이 교체로 투입되고 있어 김주엽의 합류로 로테이션 운용과 체력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에서 등번호 71번을 배정받은 김주엽은 “전통 있는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 설렌다”며 “전남의 목표 달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민현기 기자